

# 칼뱅과 베스트팔 : 16세기 성만찬에 관한 일 논쟁

박경수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 교회사

## I. 시작하는 말

16세기 종교개혁의 역사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는 성만찬 교리였다. 사실 성만찬은 신자들에게 그리스도와 의 신비적 연합을 경험하게 해주는 사건인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들 간의 형제애를 확인하게 해주는 사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개혁의 기치를 내세웠던 프로테스탄트 교회들 사이에서 성만찬이 “불화의 사과”<sup>1)</sup>가 되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로마 가톨릭에 맞서서 프로테스탄트 진영의 공동 전선을 형성하고자 했던 헤센의 필리프(Philipp of Hessen)는 루터(Martin Luther)와 츠빙글리(Huldrych Zwingli) 사이에 마르부르크 회담(Marburg Colloquy, 1529)을 주선하였다. 그러나 회담은 실패로 끝났고, 그 후 프로테스탄트 내부의 분열이 심화되었다. 그 분열의 핵심에 바로 성만찬 교리가 있었다. 루터파와 츠빙글리파 모두를 포함하는 프로테스탄트의 일치를 추구했던 칼뱅(Jean Calvin)은 성만찬 교리와 관련하여 두 사람 사이의 중재를 떠맡았다. 이런 칼뱅의 노력은 그의 『성만찬에 관한 소논문』(*Short Treatise on the Lord's Supper*; 1541)과 『취리히 합의』(*Consensus Tigurinus*, 1549)에 잘 나타나 있다.<sup>2)</sup> 그중에서도 후자는 교회

1) John T. McNeill, *Unitive Protestantism: The Ecumenical Spirit and Its Persistent Expression* (Richmond: John Knox Press, 1964), 246. 트로이 전쟁의 원인이 된 황금의 사과에 빗대어 분쟁의 씨를 가리킬 때 사용되는 관용구이다.

2) 이를 위해서는 박경수, “성만찬론에 나타난 칼뱅의 교회일치를 위한 노력: 『성만찬에 관한

일치를 위한 칼뱅의 활동이 이루어 낸 가장 중요한 성과들 중 하나인데, 이를 통해서 그는 제네바와 취리히 교회들의 일치를 이루고자 하였다.

칼뱅은 먼저 제네바와 취리히의 일치를 이루고 그 다음에 루터파와도 연합을 이루어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광범위한 일치를 구현하고자 하였다. 칼뱅은 『취리히 합의』가 루터주의자들과의 일치를 위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루터주의자들 사이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멜란히톤(Philipp Melancthon)이 『취리히 합의』를 지지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칼뱅과 멜란히톤이 비록 자유 의지나 예정론과 같은 신학적 주제들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기는 했지만, 두 사람은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깊이 교감하고 있었다.<sup>3)</sup> 칼뱅은 신앙의 근본적인 조항들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면, 비본질적인 문제들의 차이들이 있다 하더라도 복음적 교회의 일치를 위해 하나님 말씀의 진리 위에서 다른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칼뱅은 점차로 루터파 사이에서 요아킴 베스트팔(Joachim Westphal, 1510-1574)이나 틸레만 헤슈시우스(Tileman Heshusius, 1527-1588)와 같은 반(反)-멜란히톤주의자들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자신과 그들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벽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결국 칼뱅은 엄격한 루터주의자들의 공격에 대응하여 성만찬에 관한 일련의 논쟁적인 문서들을 썼다. 거기에는 『변호』(*Defense of the Sound and Orthodox Doctrine on the Sacraments, their Nature, Power, Purpose, Use and Fruitfulness*, 1555), 『두 번째 변호』(*Second Defense of the Pious and Orthodox Faith concerning the Sacraments in Answer to the Calumnies of Joachim Westphal*, 1556), 『마지막 권고』(*The Last Admonition of John Calvin to Joachim Westphal who if He Heeds it not must henceforth be Treated in the Way which Paul Prescribed for Obstinate Heretics*,

소논문』과 『취리히 합의』를 중심으로, 『칼빈연구』 제3집(한국장로교출판사, 2005), 207-228을 참고하라.

3) 칼뱅과 멜란히톤의 관계를 알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글들이 유익하다. Philip Schaff, "Calvin and Melancthon,"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 Vol. VIII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1910): 385-393; James T. Hickman, "The Friendship of Melancthon and Calvin," *Westminster Theological Journal* 38 (Winter 1976): 152-165; and Timothy Wengert, "'We Will Feast Together in Heaven Forever': The Epistolary Friendship of John Calvin and Philip Melancthon," *Melancthon in Europe: His Work and Influence beyond Wittenberg*, ed. by Karin Maag (Grand Rapids: Baker Books, 1999): 19-44.

1557), 그리고 『명백한 설명』(*The Clear Explanation of Sound Doctrine concerning the True Partaking of the Flesh and Blood of Christ in the Holy Supper to Dissipate the Mists of Tileman Hesbusius*) 등이 포함된다.

본고에서는 종교개혁 시기에 칼뱅과 베스트팔을 중심으로 한 엄격파 루터주의자들 사이에서 벌어졌던 성만찬 논쟁이 어떻게 진행되었으며, 그 핵심 쟁점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화해를 이루기가 왜 그렇게 어려웠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16세기의 가장 치열한 논쟁의 모습을 제대로 파악하게 될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성만찬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II. 논쟁의 과정

1551년 『취리히 합의』가 공포되자마자, 칼뱅은 엄격한 루터주의자들로 부터 비난을 받았다. 함부르크의 루터파 목사인 요아킴 베스트팔<sup>4)</sup>은 『취리히 합의』는 스위스의 교회들이 츠빙글리의 “성례주의”를 재확인한 것에 불과하다고 간주하면서, 특히 성찬에서 그리스도가 육체적으로 임재한다는 루터의 해석을 거부하는 데 대해 반감을 표시하였다. 『취리히 합의』의 24번째 조항은 이렇게 말한다.

이런 방식으로 화체설이라는 교황주의자들의 허구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천상의 영광을 손상시키거나 그의 인성의 실체에 얼마간 모순되는 전적으로 지어낸 이론들과 무익한 강변들이 논박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빵 아래에 그리스도를 두거나 빵과 그리스도를 결합하는 것

4) 1510년 함부르크에서 태어나 비텐베르크에서 루터와 멜란히톤 문하에서 공부했다. 멜란히톤의 추천으로 1532년 고향에서 교사로 임명되기도 했다. 그 후 비텐베르크로 갔다가 1541년 다시 성 카타리나 교회의 목사로 초청을 받아 고향으로 돌아왔다. 1571년 함부르크의 감독자로 임명되어 1574년 1월 16일 죽을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였다. 1546년 루터가 죽은 후에 베스트팔은 멜란히톤이 교리적 변형을 피하는 데 대항하여 루터의 진정한 가르침을 충실히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던 “엄격파 루터주의자들”에게 가입하였다. 멜란히톤의 추종자들은 “필립주의자”로 불렸다. Joseph N. Tylanda, “The Calvin-Westphal Exchange: The Genesis of Calvin’s Treatises against Westphal,” *Calvin Theological Journal* 9 (1974), 183.

은 빵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화된다고 하는 것만큼이나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sup>5)</sup>

이 조항은 칼뱅과 베스트팔 사이에 길고도 복잡한 문서 전쟁을 일으켰다. 칼뱅-베스트팔 논쟁은 1552년부터 1558년까지 6년 이상 계속되었다.<sup>6)</sup>

베스트팔이 먼저 1552년 『혼합 사료』(*Farrago of Confused and Divergent Opinions on the Lord's Supper Taken from the Books of the Sacramentarians*)라는 책으로 논쟁의 불을 지폈다. 이 책에서 베스트팔은 츠빙글리, 오이콜람파디우스(Oecolampadius), 부처(Bucer), 불링거(Bullinger), 아 라스코(à Lasco), 칼뱅과 같은 사람들에게 “성례주의자들”이라는 딱지를 붙였다. 그는 그중에서도 칼뱅을 가장 길게 논하면서 그의 『성만찬에 관한 소논문』(*Short Treatise on the Lord's Supper*, 1541)<sup>7)</sup>과 『취리히 합의』(*Consensus Tigurinus*, 1549)<sup>8)</sup> 등을 인용한다. 베스트팔은 소위 “성례주의자들” 사이에서도 “이것이 내 몸이다.”는 제정의 말씀을 서로 달리 해석하여 혼돈이 일어나고 있음을 도표로 제시하였다.

어떤 자들은 빵이 몸을 의미한다고 하고, 어떤 자들은 빵이 몸의 표시나 모형이라고 하고, 어떤 자들은 표지라고 하고, 어떤 자들은 상징이라고 하고, 어떤 자들은 기념이라고 하고, 어떤 자들은 표현이라고 하고, 어떤 자들은 증거 혹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나누는 교제의 보증이라고 하고, 어떤 자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몸을 기억하는 것이라 하고, 어떤 자들은 그

5) John Calvin, *Tracts and Treatises on the Doctrine and Worship of the Church*, Vol. II, tr. by Henry Beveridge (Grand Rapids :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58), 219.

6)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는 Joseph N. Tylenda, “The Calvin-Westphal Exchange,” 182-209; idem, “Calvin and Westphal: Two Eucharistic Theologies in Conflict,” *Calvin's Books*, ed. by Wilhelm H. Neuser (1997) : 9-21을 참고하라.

7) John Calvin, “Short Treatise on the Lord's Supper,” in *Calvin : Theological Treatises*, tr. by J. K. S. Reid (London : SCM Press, 1954) : 142-166. 『소논문』은 1540년 슈트라스부르크에서 씌어졌고, 1541년 제네바에서 출판되었다. 이 『소논문』에서 칼뱅은 성만찬과 관련된 많은 주제들, 즉 제정의 말씀, 성만찬의 유익들, 올바른 사용, 오류들, 논쟁들에 대해 다루고 있다. 테오도르 베즈는 이것을 “프랑스 동족들을 위해 칼뱅이 쓴 성만찬에 관한 작지만 황금 같은 논문”이라고 평하였다. John Calvin, *Tracts and Treatises*, Vol. II, 163.

8) John Calvin, *Tracts and Treatises*, Vol. II, 194-244. 베즈는 “이 문서는 칼뱅과 불링거를 결합하였고, 제네바와 취리히 교회들을 단단하게 묶어 주었다.”고 평한다. John Calvin, *Tracts and Treatises*, Vol. II, 199.



리스도의 영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확증이라고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나누는 교제라고 한다.<sup>9)</sup>

베스트팔의 도표는 28가지의 서로 다른 해석들을 인용하였다. 『혼합 사료』가 출판된 직후에 베스트팔은 그 후속편으로 『참된 믿음』(*The True Belief in regard to the Lord's Supper Demonstrated and Taught in the Words of Paul the Apostle and the Exangelists*, 1553)을 출간하였다.

칼뱅은 처음에는 베스트팔에게 대응하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그의 공격이 여러 곳에서 루터파와 개혁파의 관계에 해를 끼치는 것을 보고서 마침내 그에게 응대하기로 결정하였다. 1554년 8월 7일 불링거에게 보낸 편지에서 칼뱅은 “나는 결국 무엇인가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나에게 조금이라도 여유가 생기면 이 일에 착수하여 금방 끝낼 것입니다.”<sup>10)</sup> 하고 썼다. 불링거는 1554년 9월 9일의 답장에서 한껏 고무되어서, “나에게는 지금껏 아무런 기쁨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당신의 경건함이 무엇인가를 시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서 기운이 넘칩니다. 나의 형제여 계속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성령을 허락하시어, 당신의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가져다주기를 기원합니다.”<sup>11)</sup> 하고 대답하였다.

1554년 10월 6일 칼뱅은 자신이 작성한 초안을 취리히로 보내어 의견을 구했다. 그는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글이 베스트팔의 글에 대한 스위스 교회들의 공통된 응답이 되게 하려 한 것이다. 『혼합 사료』가 자신뿐만 아니라 취리히 교회에 대한 공격이었기 때문에, 칼뱅은 베스트팔에 대한 통일된 공동 전선을 원하였다. 취리히의 목회자들은 칼뱅이 베스트팔에게는 너무 가혹하고 루터에게는 너무 관대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이에 따라 칼뱅은 내용을 약간 수정하여 다시 제시하였다. 이런 과정을 통해 마침내 『변호』(*Defense*)가 1555년 1월에 제네바와 취리히에서 동시에 출간되었다. 이 책은 칼뱅의 “스위스 목회자들에게 보내는 편지”, 『취리히 합의』 본문, “합의 항목들에 대한 해설”의 세 부분으로 이루어졌다. 칼뱅의 주된 관심은 베스트팔의 『혼합 사료』와 『참된 믿음』의 공격으로부터 『취리히 합의』를 옹호하는 것이었다.

9) John Calvin, *Tracts and Treatises*, Vol. II, 208.

10) Joseph N. Tylenda, “The Calvin-Westphal Exchange,” 190; “Calvin and Westphal,” 12.

11) *Ibid.*

칼뱅이 『변호』로써 논쟁의 장에 뛰어들자, 베스트팔은 기다렸다는 듯이 『정당한 변호』(*A Just Defense against the False Accusations of a Certain Sacramentarian*, 1555)라는 또 다른 논쟁적인 글을 출판하였다. 제목이 암시하듯이 베스트팔은 칼뱅을 여전히 “성례주의자”로 간주했다. 그는 칼뱅이 루터의 입장을 오해하고 있으며, 『취리히 합의』와 『아우크스부르크 신앙고백』은 서로 조화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베스트팔은 자신이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평화를 교란하고 있다는 칼뱅의 비난에 대해 이를 부인하면서, 사실 루터파와 성례주의자들 사이에 평화가 존재한 적이 없었다고 말하기까지 하였다.<sup>12)</sup> 칼뱅은 10월 초에 베스트팔의 이 책자를 아라스코에게서 전해 받고, 파렐(Guillaume Farel)에게 이렇게 편지하였다. “베스트팔이 나를 대적하여 야만스러운 책자를 출간했습니다. 내가 그 책에 답하는 것이 좋을지 잘 모르겠습니다.”<sup>13)</sup>

칼뱅의 『두 번째 변호』(*Second Defense*)가 1556년 1월에 나왔다. 이 글은 그의 첫 번째 작품에 비해 분량 면에서는 4-5배 많았으며, 내용 면에서는 더 신학적이고 논쟁적이었다. 여기서 칼뱅은 베스트팔을 중상모략자로 규정지었다. 불링거의 조언에 따라 칼뱅은 자신의 이 두 번째 작품을 베스트팔이 논쟁을 개시한 작센과 남부 독일의 목회자들에게 헌정하였다. 이 헌정은 다분히 정치적인 것으로, 칼뱅은 이를 통해 온건한 루터주의자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 수 있기를 희망했다. 칼뱅은 전쟁이 베스트팔의 오만한 공격으로 촉발되었음을 분명히 했으며, 그리스도 안에서의 일치에 호소하면서 루터파 목회자들에게 분열의 경향들에 맞서 싸울 것을 당부하였다.

그러나 칼뱅의 두 번째 논문으로 인해 문서 전쟁은 더욱 확대되었다. 불링거가 해명서를 출간하고, 루터파 목회자들(Matthäus Judex, Erhard Schnepff, Paul von Eitzen)은 스위스 교회들에 대한 공격을 개시했다. 1556년 9월에 베스트팔은 『편지』(*A Letter which briefly Answers the Accusations of John Calvin*)를 썼고, 이 글은 작센의 목회자들의 『신앙고백』(*Confession of Faith on the Sacrament of the Eucharist, in which the Ministers of the Church of Saxony defend the Presence of the Body and Blood of the Lord Jesus Christ in the Supper by Solid Arguments from Sacred Scripture in Answer to the Book Dedicated to Them by John Calvin*, 1557)과

12) Joseph N. Tylenda, “The Calvin–Westphal Exchange,” 198; “Calvin and Westphal,” 14.

13) John Calvin, *Letters of John Calvin*, Vol. III, ed. by Jules Bonnet (New York: Burt Franklin, 1972), 235.

함께 출판되었다. 칼뱅은 베스트팔 측의 힘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하면서, 독일 목회자들 내에서의 멜란히톤의 영향력은 과대평가하였다. 불링거는 작센 목회자들의 『신앙고백』을 읽고 나서 1557년 5월 16일에 칼뱅에게 편지하여 이렇게 썼다. “당신은 육체적 임재라는 아둔한 견해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소수라고 생각했습니다. … 그러나 군대가 줄지어 공격하며, 모두가 무장을 하고서 우리에게 대적하여 일어납니다. 모두가 베스트팔의 주장을 옹호합니다.”<sup>14)</sup> 칼뱅은 베스트팔 측이 소수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자신이 작센의 수많은 루터파 목회자들과 대항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않을 수 없었다.

칼뱅은 『마지막 권고』(*Last Admonition*, 1557)라는 제목으로 출간한 자신의 세 번째 글이 자신의 최종 답변이 되길 원했다. 이 세 번째 논문은 칼뱅의 두 번째 논문에 비해 거의 두 배나 긴 글이다. 『마지막 권고』는 베스트팔과의 논쟁에서 칼뱅이 쓴 마지막 논문이지만, 베스트팔에게는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 1558년 베스트팔은 『대답』(*Answer to Some of the Outrageous Lies of John Calvin*)과 『해명』(*Apology concerning the Defense of the Lord's Supper against the Errors and Calumnies of John Calvin*)을 출판하여 또다시 칼뱅을 반박하였다. 칼뱅은 별도의 책으로 이에 대응하지는 않았지만, 1559년 『기독교 강요』 최종판의 4권 17장에서 다시 한번 루터주의자들에 대한 적대감을 표출하였다. “확실히 어떤 자들(루터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오류를 털끝만큼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의 수치에 대해 무지를 드러낸다. 나는 지금 교황주의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교황주의자들의 가르침이 오히려 더 참을 만하거나 적어도 더 온건하다.”<sup>15)</sup>

1561년에 칼뱅은 성만찬에 관한 또 하나의 논문을 저술하였는데, 그것은 1559년 이래 하이델베르크에서 그 문제를 둘러싸고 격렬한 논쟁이 계속되었기 때문이다.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가르치던 엄격한 루터주의자 티레만 헤슈시우스가 팔츠의 선제후 앞에서 성만찬에 대한 설명을 요청받았을 때, 그는 칼뱅이나 불링거와 함께 성만찬을 거행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였다. 헤슈시우스는 1560년에 『육체의 임재』(*The Presence of the Body of Christ in the Lord's Supper against the Sacramentarians*)라는 논문을 출간하였다. 칼뱅은 1561년에 『명백한 설명』(*The Clear Explanation*)이라는 논문으로 대응하였다.

14) Joseph N. Tylenda, “The Calvin – Westphal Exchange,” 205; “Calvin and Westphal,” 16.

15)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1559), ed. by John T. McNeill, tr. by Ford L. Battles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54), IV, 17, 30.

이 책에서 칼뱅은 우리가 성만찬을 거행할 때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방식을 자세하게 논하였고, 성만찬에 있어서 일치의 소망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이 책에서 칼뱅은 루터파 형제들에게 “트집 잡는 일일량은 제쳐두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바 일치를 추구합시다.”<sup>16)</sup> 하고 호소하였다. 그러나 이 모든 노력들의 결과는 고무적이지 못했다. 루터주의자들은 『협화 신조』(*The Formula of Concord*, 1577)에서 칼뱅주의자들을 “음흉한 성례주의자들, 가장 유해한 족속들”<sup>17)</sup>이라고 불렀다. 결국 칼뱅주의자들과 루터주의자들은 마르부르크에서의 츠빙글리와 루터처럼 서로에게 등을 돌리고 말았다.

### III. 논쟁의 주제들

그렇다면 칼뱅과 베스트팔을 위시한 엄격한 루터주의자들 사이의 논쟁의 주제들은 무엇이었는가? 첫 번째 논쟁점은 성만찬에서 그리스도가 임재하는 방식에 대한 것이었다. 베스트팔은 일련의 논문들을 통해 칼뱅과 취리히 사람들을 성례주의자들, 즉 “그저 공허한 표지들을 제외하고는 성만찬의 성례에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sup>18)</sup> 자들이라고 비난하였다. 그러나 칼뱅의 입장에서 자신은 결코 성례주의자가 아니었다. 왜냐하면 자신은 언제나 성만찬에서 그리스도가 참으로 믿는 자들과 교통하신다고 가르쳤기 때문이다. 만일 성만찬에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참된 교제가 있다면, 표지는 공허한 표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임재의 표지이다. 베스트팔과 마찬가지로 칼뱅도 성만찬에서 그리스도의 임재를 강조하였다. 단지 달랐던 점은 임재의 방식에 대한 것이었다. 칼뱅은 베스트팔의 어리석은 비방이 자신의 성만찬 교리에 대한 무지와 오해에서 비롯했다고 주장하였다. 칼뱅의 입장에서 볼 때 베스트팔의 어리석은 비난은 교회의 평화와 일치를 교란하는 악마적인 행동이었다.

나로서는 같은 식으로 그에게 앙갚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가 즐

16) John Calvin, *Tracts and Treatises*, Vol. II, 576.

17) Justo A. González, *A History of Christian Thought*, Vol. III (Nashville: Abingdon Press, 1975), 116.

18) John Calvin, *Tracts and Treatises*, Vol. II, 207.

거 우리를 공격했던 바로 그 어리석은 중상비방을 격퇴하기 위해서 다음의 세 문장으로 응수할 것이다. 첫째로, 악마의 특징은 중상비방자라는 것이며, 이것이 그의 이름이다. 둘째로, 악마의 특징은 분명한 것을 모호하게 하고, 평화를 교란하여 소란과 불화를 일으키는 것이다. 셋째로, 악마의 특징은 믿음의 통일성을 깨고 부수는 것이다. 이 세 가지가 모두 이 재베스트팔과 일치하기 때문에 나는 그를 악마의 아들이라고 선언할 필요조차 없다. 왜냐하면 상황이 그가 어떤 자인지 보여주기 때문이다.<sup>19)</sup>

그러나 베스트팔에게는 성만찬에서 “육체적” 임재가 없다면 표지들은 단지 공허한 표지들에 불과하였다. 칼뱅과 베스트팔의 차이는 그리스도의 임재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임재 방식에 대한 것이었다. “유일한 논쟁은 먹는 방식에 관한 것이다.”<sup>20)</sup> 베스트팔은 이것이 육체적인 것이 되기를 원했지만, 칼뱅은 영적인 것이 되기를 원했다.

두 번째 논쟁점은 기독교, 특히 속성의 교류(communicatio idiomatum)나 편재설(ubiquity)과 같은 교리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었다.<sup>21)</sup> 교회와 성례에 대한 교리는 기독교와 분리되어 이해될 수 없는데, 그것은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자 성례의 “내용 혹은 실체”<sup>22)</sup>이기 때문이다. 근본적으로 칼뱅과 베스트팔 논쟁의 근저에는 그리스도의 두 본성에 대한 그들의 상이한 이해가 있었다. 비록 두 사람 모두가 칼케돈 신조를 받아들이고 네스토리우스주의(Nestorianism)<sup>23)</sup>나 유티키우스주의(Eutychianism)<sup>24)</sup>를 강하게 부인했지만, 두

19) John Calvin, *Tracts and Treatises*, Vol. II, 211.

20) John Calvin, *Tracts and Treatises*, Vol. II, 574.

21) 이 주제와 관련해서는 Charles Partee, “Calvin’s Polemic: Foundational Convictions in the Service of God’s Truth,” *Calvinus Sincerioris Religionis Vindex: Calvin as Protector of the Purer Religion*, ed. by Wilhelm H. Neuser and Brian G. Armstrong (Kirksville, MO: Sixteenth Century Journal Publishers, 1997): 97-122를 보라.

22) *Institutes*, IV, 17, 11.

23) 성육신한 그리스도 안에 두 개의 분리된 위격, 즉 신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이 있다는 교리이다. 네스토리우스는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어머니”(theotokos)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에 반대하였다. 그가 볼 때 마리아는 그리스도의 어머니이지, 영원한 로고스의 어머니는 아니었다. 네스토리우스주의는 네스토리우스가 의도한 것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간 견해를 취하였다. 그리스도의 두 본성의 구별을 두 개의 다른 위격이라는 데까지 밀고 나간 것이다. 이는 그리스도의 위격에 있어서 명백한 이중성으로 이끌었다. *The Oxford Dictionary of the Christian Church*, ed. by F. L. Cross and E. A. Livingstone (Oxford University Press, 1974), 961-963을 보라.

사람 사이의 논쟁은 “칼뱅의 소위 네스토리우스주의적 경향과 베스트팔의 소위 유티키우스주의적 경향의 같등으로”<sup>25)</sup> 이해할 수 있다. 칼뱅은 베스트팔을 유티키우스주의자라고 비난하면서도,<sup>26)</sup> 자기 자신이 네스토리우스적 경향을 지니고 있다고는 결코 생각하지 않았다. 칼뱅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두 본성을 혼합하거나 분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었다.<sup>27)</sup> 칼뱅의 관점에서 그리스도의 두 본성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구별되는 것이었다.

칼뱅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 간에는 환원될 수 없는 이중성이 있다. 따라서 칼뱅은 “우리는 그리스도가 철저히 그리고 완전히 두 본성을 유지하기를 원한다.”<sup>28)</sup>고 말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이자 인간인 그리스도는 뒤섞이지 않고 하나로 결합된 두 본성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주장한다.”<sup>29)</sup>고 말했다. 물론 신성에 따르면 그리스도는 어디에나 계실 수 있겠지만, 칼뱅은 속성의 교류나 편재라는 루터주의자들의 견해로는 그리스도의 인성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없다고 믿었다. 칼뱅의 관점에서 볼 때, 루터주의자들은 속성의 교류라는 교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구별을 없애려고 하는 것처럼 보였다. 칼뱅에 따르면 루터주의자들은 그리스도의 인성을 고양하는 대신에 소멸시켜 버렸다. 칼뱅은 루터주의자들이 초대교회 교부들이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 낸 속성의 교류라는 교리를 자신들의 편의대로 성만찬에 끌어들이므로써 그 교리를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sup>30)</sup>

빌헬름 니젤(Wilhelm Niesel)에 따르면, “분리되지는 않지만 구별되지는” 칼케돈 신조의 정의가 칼뱅 신학의 “내용뿐만 아니라 형식까지도 지배한다.”<sup>31)</sup> 프랑수아 방델(François Wendel)도 두 본성의 구별은 “칼뱅의 신학 사상

24) 성육신한 그리스도의 위격 안에 단 하나의 신적 본성만이 있다는 교리이다. 그리스도의 두 본성에 대한 반대는 “단성론”(monophysitism)으로 알려졌는데, 그리스어 monos(“하나의”)와 fusis(“본성”)에서 유래한 것이다. 유티키우스와 같은 사람에게서 나타난 극단적인 형태의 단성론은 칼케돈 공의회에서 정죄를 당했다. *The Oxford Dictionary of the Christian Church*, 931-932를 보라.

25) Charles Partee, “Calvin’s Polemic: Foundational Convictions in the Service of God’s Truth,” 114.

26) *Institutes*, IV, 17, 30.

27) *Institutes*, II, 14, 4; *Institutes*, IV, 17, 30.

28) John Calvin, *Tracts and Treatises*, Vol. II, 241.

29) *Institutes*, II, 14, 4.

30) Ronald S. Wallace, *Calvin’s Doctrine of the Word and Sacrament* (Edinburgh: Oliver and Boyd, 1953), 230.

에서 대단히 중요한 견해이며, 아마도 가장 독창적인 부분일 것이라고<sup>32)</sup> 암시하였다. 칼뱅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성이 그의 인성과 깊이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어서, 각각이 손상되지 않고 독특한 본성을 유지하면서도 이 두 본성이 한 분 그리스도를 구성한다.”<sup>33)</sup>고 주장하였다. 칼뱅은 또 “하나님의 아들, 중보자,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이미 하늘의 영광에 참여하셨기에, 그는 공간적 거리에 있어서 육체로는 우리와 떨어져 있지만, 그럼에도 그의 신적인 본질과 능력에 있어서는 영적인 은혜가 하늘과 땅을 가득 채운다.”<sup>34)</sup>고 확신했다. 신성에 의하면 그리스도는 편재하시지만, 인성에 따르면 그리스도는 하늘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칼뱅은 두 본성의 구별이 우리 구원에서 근본적인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그는 편재와 속성의 교류라는 개념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성찬 논쟁은 이처럼 단지 교회 의식 가운데 하나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기독교론적인 문제였다. 문제의 핵심이 우리 구원과 직결되는 그리스도와 관계되어 있었기 때문에, 칼뱅과 베스트팔 간의 성만찬 논쟁은 힘들고 격렬할 수밖에 없었다.<sup>35)</sup>

세 번째 논쟁점은 믿는 자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였다. 초대교회부터 신학자들은 어떻게 빵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해 왔다. 로마 가톨릭의 스콜라주의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 본질(substantia)과 외양(accidentia)을 구별한 아리스토텔레스를 인용하여, 성만찬에서 축성(祝聖)의 기도를 하는 순간에 빵과 포도주의 외양, 즉 색깔이나 맛이나 냄새는 그대로이지만 빵과 포도주의 본질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본질로 변화된다고 대답하였다. 루터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본질이 빵과 포도주의 본질에 더해져서 공존한다고 대답하였다. 츠빙글리주의자들은 제정의 말씀을 상징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이 문제에 대답하였다. 그러나 칼뱅은 16세기 논쟁뿐만 아니라 중세 스콜라주의적인 탐구에 대해서도 일격을 가했다. 1536년 『기독교 강요』 초판에 있는 아래 문장은

31) Wilhelm Niesel, *The Theology of Calvin*, tr. by Harold Knight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56), 247.

32) François Wendel, *Calvin: Origins and Development of His Religious Thought*, trans. Philip Mairet (Durham, North Carolina: The Labyrinth Press, 1987), 219.

33) *Institutes*, II, 14, 1.

34) John Calvin, *Tracts and Treatises*, Vol. II, 576.

35) Iain R. Torrance, “*Mysterium Christi and Mysterium Ecclesiae*: The Christological Ecclesiology of John Calvin,” *The Greek Orthodox Theological Review* 43 (1998): 459–467.

전체를 인용할 가치가 있다.

인간들은 호기심에서 그리스도의 몸이 빵 속에 어떻게 임재하는가를 규정하려고 노력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의 명민함을 뽐내려고, 성서의 단순한 진리에다가 덧붙여서, 그리스도가 '실재적으로' 그리고 '본질적으로' 빵에 임재하신다고 말한다. 다른 사람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모습 그대로 임재하신다고 말하기까지 하였다. 다른 사람들은 기괴한 화체설을 고안해 내었다. 어떤 사람은 빵 자체가 몸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몸이 빵 아래에 있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몸의 표지와 상징만이 보인다고 말한다. 이것은 실제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논란들이 생겨났다. 일반적으로 이런 식이었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무엇보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몸이 어떻게 우리의 것이 되며, 우리를 위해 쏟은 그리스도의 피가 어떻게 우리의 것이 되는지 물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전부를 소유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우리 대적들은 이처럼 중요한 문제들을 간과하고, 아니 무시하거나 거의 매장해 버리고서 오로지 한 가지 까다로운 질문, 즉 우리가 몸을 어떻게 먹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만 싸움을 벌이고 있다.<sup>36)</sup>

파커(T. H. L. Parker)의 분석에 따르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이 빵에 임재하는가?” 하는 질문에 성서는 대답을 분명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질문은 자칫하면 비성서적인 대답이거나 그리스도의 몸의 통일성을 해치는 분파적인 대답으로 귀결되기 쉽다. 그러나 “어떻게 우리가 성례에서 그리스도의 축복들에 참여하는가?”라는 질문은 신약성서의 중요한 주제이다.<sup>37)</sup> 칼뱅은 이런 식으로 질문의 초점을 바꾸었고, 그리하여 성례 논쟁에 새로운 차원을 열었다. 이제 핵심은 철학적 질문에서 실존적 질문으로 바뀌게 되었다. 후자의 질문에 대한 칼뱅의 대답은 물론 성령의 능력이었다.

칼뱅은 분명 소화되기 어려운 두 개의 주장을 신봉하였다. 한편으로 칼뱅은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나누어 주기 위해 그리스도의 몸이 성찬에 임재

36) John Calvin, *Institutes* (1536), tr. by Ford Lewis Battles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1986), IV, C, 27. 최종환의 *Institutes*, IV, 17, 3도 참고하라.

37) T. H. L. Parker, *John Calvin: A Biography*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75), 43-44.



하신다고 주장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그는 그리스도의 몸은 성찬의 물질적 요소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선언하였다. 그리스도는 육체적으로 하늘에 계시며,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와 땅에 있는 우리 사이에는 측량할 수 없는 간격이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가 땅에 있는 신자들과 교통하시는 것인가? 하늘과 땅의 거리는 칼뱅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그 거리를 극복하시기 때문이다. “우리의 양식이 되기 위해서 육체의 본질이 하늘에서 내려오실 필요는 없다. 성령의 능력이 모든 장애를 돌파하고 공간적 거리를 극복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sup>38)</sup>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그리스도는 우리에게로 내려오시고 동시에 우리를 들어올리셔서 자신과 연합하신다. 성령은 칼뱅의 성만찬 교리의 핵심적인 열쇠이고, 따라서 많은 칼뱅학자들은 그를 성령의 신학자라고 부른다. 칼뱅이 성만찬 신학에서 가장 공헌한 부분이 바로 성령의 역할에 대한 강조이다.

칼뱅은 우리가 성만찬에서 “성령의 신비로운 힘으로 그리스도의 몸에 접목된다.”<sup>39)</sup>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이런 연합에서조차 칼뱅은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혼합하거나 뒤섞으려는 어떤 징후도 신성모독이라고 간주하였다. 왜냐하면 그것은 곧 우리를 신격화하거나 그리스도를 비인간화하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육체에 참여한다고 말하는 것을 본질의 혼합이나 뒤섞임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해해서는 안 되며, 우리가 유일회적으로 희생을 드린 육체로부터 생명을 받는 것으로 이해해야만 한다.”<sup>40)</sup> 칼뱅은 “그리스도를 빵 아래에 가두려는”<sup>41)</sup> 루터주의자들의 시도를 강력하게 거부하였다. 그는 베스트팔과 엄격한 루터주의자들을 향하여 “그들이 그리스도를 보좌에서 끌어내 빵 부스러기 안에 가두어 놓으려고 한다.”<sup>42)</sup>고 비난하였다. 칼뱅에게 있어서 루터주의자들의 성만찬에 대한 육체적 이해는 화체설만큼이나 부조리한 것이었다. 칼뱅이 엄격한 루터주의자들에 대항하여 단호한 태도를 취한 것은 이 문제가 우리 구원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기독교론과 직결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궁극적으로 칼뱅의 신학에서 성령론, 기독교론, 성례론은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38) John Calvin, *Tracts and Treatises*, Vol. II, 577.

39) John Calvin, *Tracts and Treatises*, Vol. II, 238.

40) *Ibid.*

41) *Institutes*, IV, 17, 30.

42) John Calvin, *Tracts and Treatises*, Vol. II, 241.

네 번째 논쟁점은 불신자들도 성만찬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다. 이 주제와 관련하여 칼뱅은 불신자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누릴 수 있다는 가르침을 거부하였다. 칼뱅은 “그리스도의 살과 피는 하나님이 선택한 신자들에게 주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합당치 않은 자들에게도 참으로 주어진다.”<sup>43)</sup>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그는 또 “비가 바위 위에 떨어지면 돌 안으로 들어갈 틈이 없기 때문에 흘러내리는 것처럼, 악한 자들은 그들의 강박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기 때문에 은혜가 그들에게 미칠 수 없다.”<sup>44)</sup>고 주장하였다. 칼뱅에 따르면 신자들만이 성령의 작용을 통해 그리스도와의 교제에 참여할 수 있다. 따라서 칼뱅은 “믿음이 없이 그리스도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씨가 화염 속에서 싹들 수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부적절하다.”<sup>45)</sup>고 주장하였다. 그리스도의 몸은 선한 자들이나 악한 자들에게 차별 없이 주어지지만, 믿음이 없이는 효력도 없고 유효하지도 않다.

칼뱅은 『변호』(*Defense*)에서 다음과 같은 은유를 사용한다.

우리에게 먼저 태양의 빛을 누릴 수 있는 눈이 없다면, 아무리 태양이 빛나고 하늘에서 그 빛이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충분치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만약 주님께서 우리로 외적인 표지들을 구별할 수 있도록 허락하지 않는다면, 주께서 우리에게 외적인 표지들의 빛을 비추어 주신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은 논쟁할 필요조차 없이 명백하다. 아니, 태양의 빛이 살아 있고 활기찬 생명체에게는 활기를 북돋우지만 시체에게서는 악취를 만드는 것처럼, 믿음의 성령이 없는 곳에서 성례는 생기가 넘치는 향기가 아니라 치명적인 냄새를 발산한다는 것은 분명하다.<sup>46)</sup>

칼뱅은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는 데 “믿음의 성령”(Spirit of faith)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우리에게 눈이 없다면 태양빛이 아무런 소용이 없듯이, 믿음의 성령이 없다면 성례는 아무 효력도 없다. 성만찬에서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몸과 피를 주지만, 비신자들은 마음의 문을 닫아두기 때문에 주어진 것을 받을 수 없다.”<sup>47)</sup> 결론적으로, “성

43) *Institutes*, IV, 17, 33.

44) *Ibid.*

45) *Ibid.* 그리고 John Calvin, *Tracts and Treatises*, Vol. II, 234.

46) John Calvin, *Tracts and Treatises*, Vol. II, 232.

47) John Calvin, *Tracts and Treatises*, Vol. II, 579.

례는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데, 믿음은 성령의 특별한 선물이다.”<sup>48)</sup>

#### IV. 끝맺는 말

성만찬은 항상 우리와 그리스도의 일치를 상징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이의 일치를 상징한다. 칼뱅은 성만찬에서 그리스도인의 하나됨이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이 분열의 원인이 된 것을 개탄하면서, 성만찬의 일치를 회복하기를 소망하였다. 또 프로테스탄트 교회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촉구하였다. 칼뱅은 관습, 의식, 조직과 같은 비본질적인 문제들 때문에 교회의 일치가 깨어져서는 안 된다고 믿었다.<sup>49)</sup>

그러나 비록 칼뱅이 교회 일치를 위한 불타는 열망을 가지고 있기는 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기초하지 않는 일치는 바람직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유해하다고 믿었다. 그는 거짓 평화를 위해 하나님의 진리를 희생하고자 하지는 않았다. 진리 안에서의 일치는 그의 타협할 수 없는 원칙이었다. 칼뱅은 “신학자의 임무는 수다로 귀를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참되고, 확실하고, 유익한 것들을 가르침으로써 양심을 강하게 하는 것”<sup>50)</sup>이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그는 “나는 하나님의 진리를 순수하고 진지하게 전하기 위해 가장 경건하게 노력하였다.”<sup>51)</sup>고 선언하였다. 분명히 칼뱅의 소명은 거짓에 대항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설명하고 옹호하는 것이었다.

이것이 바로 칼뱅과 베스트팔의 논쟁이 그토록 오랫동안 끈질기고도 치열하게 지속된 이유이다. 성만찬 교리가 기독교론과 관계된 구원의 문제였기에 결코 타협하거나 양보할 수 없었던 것이다. 성찬의 문제는 비본질적 문제(adiaphora)가 아니라 구원의 문제였고, 지극히 본질적인 문제였다. 그렇기 때문에 칼뱅은 베스트팔에 반대하여 이렇게 외쳤다. “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48) John Calvin, *Tracts and Treatises*, Vol. II, 574.

49) *Institutes*, IV, 1, 12, 그리고 *Institutes*, IV, 10, 31. 칼뱅은 기독교 신앙에서 본질적 교리와 비본질적 교리를 구분하였다. 칼뱅은 『기독교 강요』에서 다음과 같은 것들을 본질적인 교리들이라고 말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 있다.

50) *Institutes*, I, 14, 4.

51) John Calvin, *Tracts and Treatises*, Vol. II, 278.

마귀들조차도 두려워하는 권세를 가진 세상의 재판관이신 그리스도여, 내 마음이 거짓과 타락으로 당신의 교리를 더럽히는 미친 사상을 품었는지 아닌지를 이제 그리고 그날에 명백하게 해주시기를 당신께 호소합니다.”<sup>52)</sup>

성만찬이 교회가 교회임을 알게 해주는 표지라고 할 때, 오늘날 교회에 더욱더 경건하고 합당한 성만찬이 회복되어야 한다. 베스트팔과의 논쟁을 통해 칼뱅은 성만찬의 올바른 이해와 시행을 위한 중요한 몇 가지 사항을 제시하고 설명하였다. 그 가운데 성령의 중재와 역할에 대한 강조, 믿음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 합당한 성만찬에 대한 강조 등은 오늘날의 성만찬에서도 강조되어야 할 점들이다.<sup>53)</sup>

| 주제어 |

칼뱅, 베스트팔, 성례 논쟁.  
(Calvin, Westphal, Eucharistic Controversy)

52) John Calvin, *Tracts and Treatises*, Vol. II, 475.

53) 박경수, “우리를 새롭게 하는 성만찬: 칼뱅의 성만찬에 대한 이해에 비추어”, 『교회와 신학』 62(2005년 가을), 44-52를 참조하라.

### 참고문헌

- Calvin, John. *Calvin : Theological Treatises*. ed. by J. K. S. Reid. London : SCM Press Ltd., 1954.
- \_\_\_\_\_.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1536). tr. by Ford L. Battles. Atlanta : John Knox Press, 1975.
- \_\_\_\_\_.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1559). ed. by John T. McNeill, tr. by Ford L. Battles. Philadelphia : The Westminster Press, 1954.
- \_\_\_\_\_. *Letters of John Calvin*. Vols. 1-4. ed. by Jules Bonnet. New York : Burt Franklin, 1972.
- \_\_\_\_\_. *Tracts and Treatises on the Doctrine and Worship of the Church*. Vols. 1-3. tr. by Henry Beveridge. Grand Rapids :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58.
- Cummings, Owen F. "The Reformers and Eucharistic Ecclesiology." *One in Christ*. 33/1 (1997) : 47-54.
- Davis, Thomas J. *The Clearest Promises of God : The Development of Calvin's Eucharistic Teaching*. New York : AMS Press, 1995.
- Elwood, Christopher. *The Body Broken : The Calvinist Doctrine of the Eucharist and the Symbolization of Power in Sixteenth-Century France*. Oxford : Oxford University Press, 1999.
- Gamble, Richard C. ed. *Calvin's Ecclesiology : Sacraments and Deacons*. Vol. 10. New York & London : Garland Publishing, 1999.
- Gerrish, Brian A. *Grace and Gratitude : The Eucharistic Theology of John Calvin*. Minneapolis : Fortress, 1993.
- González, Justo A. *A History of Christian Thought*. Vol. III. Nashville : Abingdon Press, 1975.
- Hickman, James T. "The Friendship of Melancthon and Calvin." *Westminster Theological Journal* 38 (Winter 1976) : 152-165.
- Kittelson, James M. "Martin Bucer and the Sacramentarian Controversy : the origins of his policy of concord." *Archiv für Reformationsgeschichte* 64 (1973) : 166-183.
- Klauber, Martin. "Calvin on fundamental articles and ecclesiastical union." *Westminster Theological Journal* 54 (1992) : 341-348.
- McDonnell, Kilian. *John Calvin, the Church, and the Eucharist*. Princeton :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7.
- McNeill, John T. *Unitive Protestantism : The Ecumenical Spirit and Its Persistent*

- Expression*. Richmond : John Knox Press, 1964.
- Milner, Benjamin Charles. Jr. *Calvin's Doctrine of the Church*. Leiden, Netherlands : E. J. Brill, 1970.
- Neuser, W. H. ed. *Calvinus Sacrae Scripturae Professor : Calvin as Confessor of Holy Scripture*. Grand Rapids :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90.
- Nicholls, John D. "Union with Christ : John Calvin on the Lord's Supper." *Union and Communion 1529-1979*. London : The Westminster Conference, 1979.
- Parker, T. H. L. *John Calvin : A Biography*. Philadelphia : Westminster Press, 1975.
- Partee, Charles. "Calvin's Polemic : Foundational Convictions in the Service of God's Truth." *Calvinus Sincerioris Religionis Vindex*. Vol. XXXVI. eds. by W. H. Neuser and B. G. Armstrong. Kirksville, MO : Sixteenth Century Journal Publishers, 1997.
- Pruett, Gordon E. "A Protestant Doctrine of the Eucharistic Presence." *Calvin Theological Journal*. Vol. 10, No. 2 (November 1975) : 142-174.
- Remm, Paul. *Calvin and Bullinger on the Lord's Supper*. Bramcote : Grove Books Limited, 1989.
- Schaff, Philip. "Calvin and Melancthon."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 Vol. VIII. Grand Rapids :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10 : 385-393.
- Torrance, Iain R. "Mysterium Christi and Mysterium Ecclesiae : The Christological Ecclesiology of John Calvin." *The Greek Orthodox Theological Review* 43 (1998) : 459-467.
- Tylenda, Joseph N. "Calvin and Christ's Presence in the Supper True or Real." *Scottish Journal of Theology* Vol. 27 (February 1974) : 65-75.
- \_\_\_\_\_. "Calvin and Westphal : Two Eucharistic Theologies in Conflict." *Calvin's Books*. ed. by Wilhelm H. Neuser. Heerenveen : J. J. Groen & Zoon, 1997.
- \_\_\_\_\_. "The Calvin-Westphal Exchange : The Genesis of Calvin's Treatises against Westphal." *Calvin Theological Journal* 9 (1974) : 182-209.
- \_\_\_\_\_. "The Ecumenical Intention of Calvin's Early Eucharistic Teaching." *Reformatio Perennis : Essays on Calvin and the Reformation in honor of Ford Lewis Battles*. ed. by B. A. Gerrish. Pittsburgh : The Pickwick Press, 1981.
- Wallace, Ronald S. *Calvin's Doctrine of the Word and Sacrament*. Grand Rapids :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57.
- Wendel, François. *Calvin : Origins and Development of His Religious Thought*. tr. by Philip Mairet. Durham : The Labyrinth Press, 1987.
- Wengert, Timothy. "'We Will Feast Together in Heaven Forever' : The Epistolary Friendship of John Calvin and Philip Melancthon." *Melancthon in Europe : His Work and Influence beyond Wittenberg*. ed. by Karin Maag.

Grand Rapids : Baker Books, 1999.

- 박경수. “성만찬론에 나타난 칼뱅의 교회일치를 위한 노력: 『성만찬에 관한 소논문』과 『취리히 합의』를 중심으로.” 『칼빈연구』 제3집. 한국장로교출판사, 2005.
- \_\_\_\_\_. “우리를 새롭게 하는 성만찬: 칼뱅의 성만찬에 대한 이해에 비추어.” 「교회와 신학」 62(2005년 가을): 44-52.

### **John Calvin and Joachim Westphal : An Eucharistic Controversy**

Park, Gyeong-Su

Professor

Presbyterian College and Theological Seminary

Seoul, Korea

The Lord's Supper is a sacrament of the Church. Christians experience union not only with Christ but also with brothers and sisters in the Lord's Supper. However, the doctrine of the Lord's Supper has been a seriously divisive issue since the Reformation period. The problem of the Lord's Supper divided Luther and Zwingli and they were never reconciled. It is ironic that the Lord's Supper was at the center of disagreement among the reformers because the Lord's Supper was and is a sign of unity and a bond of fellowship.

As a bridge-builder, Calvin attempted to reconcile Luther and Zwingli by offering a middle position in the matter of the Lord's Supper. This position was expressed effectively in Calvin's *Short Treatise on the Lord's Supper* (1541) and *Consensus Tigurinus* (1549). Although the *Consensus Tigurinus* prevented the Swiss Reformed from dividing into two groups, Calvinists and Zwinglians, it also brought new conflict between the Lutheran and the Reformed churches. In Germany, Calvin's agreement with the Zwinglians was seen as a betrayal of the Lutherans. Strict Lutherans, such as Joachim Westphal and Tileman Heshusius, launched a bitter attack against Calvin. Calvin wrote a series of controversial pamphlets on the Lord's Supper against these strict Lutherans. The series included *Defense of the Sound and Orthodox Doctrine on the Sacraments* (1555), *Second Defense of the Pious and Orthodox Faith concerning the Sacraments* (1556), *The Last Admonition of John Calvin to Joachim Westphal* (1557), and *The Clear Explanation of Sound Doctrine concerning the True Partaking of the Flesh and Blood of Christ* (1561).

If so, what were the controversial issues between Calvin and the strict Lutherans? The first controversial point between Calvin and Westphal was over the mode of Christ's presence in the Supper. Westphal wanted it to be corporeal, while Calvin declared it to be spiritual. The second controversial point between Calvin and Westphal was directly related to the issue of Christology, particularly to the topics of the *communicatio idiomatum* (communion of properties) and ubiquity. The third controversial point was related to the question about how the believers can participate in Christ's body and blood. From the early church theologians have raised a question, "how is the body of Christ present in the bread?", but it does not



receive an answer in Scripture. The question, however, "how we participate in Christ's blessings in the sacrament" is the key issue of the New Testament. In this way Calvin changed the focus of the question, so that he opened a new dimension in the sacramental controversy. His answer to the latter question was of course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Fourth controversial point was that unbelievers can receive the efficacy of the Lord's Supper. Regarding this issue, Calvin rejected the doctrine of the enjoyment of Christ's body by unbelievers.

The eucharistic controversy was a Christological issue, not one of mere ecclesiastical ceremony. Ultimately pneumatology, Christology, and sacramental theology were closely interlinked in Calvin's theology. Since the real issue was the doctrine of Christ which related to our salvation, the sacramental controversy between Calvin and Westphal was inevitably difficult and fierce.